그 사람 지금은

(43) '홈런왕' 김봉연 前 해태타이거즈 선수 〈하〉

대학때 3연타석 홈런·노히트 노런 投·打 대기록

고교는 물론 대학, 실업, 국가대표 등 아마 시절 거의 모든 대회에서 홈런왕을 차지했던 김봉연은 항상 1등만을 했던 엘리트 선수였다.

이미 아마시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고, 나이 서른을 넘겨 프로야구가 창설되면서 2년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생활을 7년 동안이나 하면서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일반인이 보기에 야구 천재에 가까운 그가 정작 야구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자장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초등학교 시절 김봉연은 야구선수인 형이 훈련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귀가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오지 않자 교실까지 찾으러 갔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장면을 형이 먹고 있더란 것이다. 야구 선수가 되면 자장면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린 생각에 그날부로 야구부에 들어간 그는 이후 단 한 번도 주전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었다.

연세대 1학년이었던 1973년 대학야구사상 첫 3연타석 홈런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같은 해 고려대와의 정기전에서는 투수로 나서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다. 또 군 제대 후 복학생 신분으로 출전했던 1977년 대학선수권대회에서는 도루왕에 오를 정도로 모든 방면에 탁월한 만능선수였다.

이 중 홈런에 관해서는 한국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을 보여주었다.

83년 교통사고 얼굴·머리 대수술
당시 전남대병원 매일 팬들로 북적

대학, 실업, 국제선수권대회에서 홈런왕을 놓쳐 본적이 없다. 프로야구가 1982년 시작됨에 따라 운동선수로서 전성기를 넘긴 서른 한 살의 나이에 프로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활약은 오히려 한층 눈부셨다.

프로야구 원년 홈런왕을 차지한 김봉연의 홈런 기록은 22개. 이승엽의 56개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게 보이지만 요즘보다 52게임 정도 적은 80경기를 치른데다 사상 처음으로 장기레이스를 경험한 원년 기록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김봉연을 전문가는 물론 언론도 선천적으로 힘이 장사인 야구천재로 묘사하기 일쑤였지만 정작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키가 180㎝가 되지 못하고, 몸무게 역시 80㎏이 넘지 못한 평범한 체격의 선수가 어떻게 힘이 장사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의 타격 스윙은 아래서 위로 걷어 올리는 스타일이어서 전문가나 야구 담당 기자들은 '골프 스윙' 또는 '어퍼 스윙'으로 불렀다.

하지만 김봉연은 자신의 스윙을 '레벨 업(level up)' 스윙이라고 설명한다.

"(내 타격은)힘으로 공을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트를 수평으로 진행시키다 타격시 공의 스핀을 최대한 먹이기 위해 배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강하게 때렸기 때문이 아니라 공을 기술적으로 정확히 맞추되 공의 회전을 최대한 높이기 때문에 공이 높게 떠 펜스를 넘기는 것입니다"

아마 시절 홈런왕을 놓쳐 본 적이 없는 그의 홈런왕에 대한 욕심은 자존심을 넘어 집념에 가깝다.

그는 82년 어느 날 경기중 부러진 발목 탓에 깁스를 한 채 덕 아웃에 앉아있었다. 백인천의 집요한 추격에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주장 직권으로 타격 연습을 하고 있던 후배를 불러 들이고 대타로 나섰다. 지금으로선 있을 수도 없는 선배의 횡포였다.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안타를 쳐도 사실상 진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홈런을 날렸고, 절룩거리며 장시간(?) 그라운드를 돌아나왔다. 그 같은 근성으로 프로야구 원년에 22개의 홈런을 날려 백인천과 김준환을 3개 차로 누르고 홈런왕이 됐다.

해태타이거즈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1983년은 그의 야구인생에 있어 가장 잊히지 않는 한해다.

약 력

- ▲1952년 전주 출생
- ▲군산상고·연세대 졸업
- ▲한국 최초 아마 야구 3연타석 홈런 기록
- ▲1982년 프로야구 원년 홈런왕, 1983년 한국시리즈 MVP
- ▲극동대학교(충북) 사회체육학과 교수

1983년 김봉연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맨다는 긴급뉴스가 나가자, 그가 입원한 전남대병원에는 수백여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전남대병원은 밀려드는 팬들을 막기 위해 병원 정문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친구 차로 여수를 갔는데 운전은 친구가 하고, 뒤에는 친구 부인이 탔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친구 부인이 숨졌다.

이 사고로 그는 얼굴과 머리에 314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했다. 그가 위독하다는 긴급뉴스에 병문안을 오는 팬들이 전남대병원을 메울 정도였고 입원하는 27일 동안 8천통의 팬레터를 받았다.

"코치시절 선배 역할에만 치중
지도자로서 성공 못해 아쉬움"

그리고 수개월 후 열린 한국시리즈에서 MBC청룡을 4승1무로 누르고 해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는 MVP로 선정됐다. MVP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로 먼저 간 친구 부인의 영전에 상을 바친다"고 말했다.

선수로는 최고였지만 지도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아픈(?) 지적에 대해서는 "후배를 가르치는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코치 시절 지도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선배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야구를 잘했다는 선수 중 유일하게 감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감독을 못해 본 것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봉연은 "프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연봉과 인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만큼 걸핏하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는 것은 프로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다며 인터뷰 자리를 일어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신안 증도

年 1만 5천t 천일염 생산 '국내 최대'
76년 도덕도 인근 '신안 보물선' 발견

겨울의 문턱인 요즘 자연과 어울리는 곳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장소로 뜨는 곳이 있다. 바로 신안 증도다. 마침 광주~무안국제공항 간 고속국도의 일부구간이 개통되어 더 가까워졌다.

증도는 물이 귀한 섬이라 시루에 견주었고, 본디 앞시리(前甑島·전증도)와 뒷시리(後甑島·후증도)로 나눠져 있었다.

두 섬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북 피난민들의 정착과정에서 4.9㎢가 간척됐고, 척방산업(주)이 염전을 경영했다.

1963년 대평염업, 1985년 태평염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는 손일선 외 2인이 주인이다. 단일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300만㎡)이며, 250명의 소금장인이 연간 1만5천톤의 천일염을 생산한다. 지난 6월 문화재청은 증동리 1931번지 일대 염전과 1648번지 석조소금창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했다.

고시를 눈앞에 둔 염전은 1공구 100여만㎡, 창고부지 약 6만㎡(창고 27동),수로 5천㎡이다. 올해 7월 소금박물관으로 개장한 석조창고는 대지면적 1만2천829㎡, 건축면적 991.74㎡ 연면적 991.74㎡ 크기다.

목포대학교 함경식 교수는 신안지역 천일염에 대해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일반 소금에 비해 낮고, 마그네슘·칼륨·칼슘 같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산화 능력도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증도 태평염전 전경. /신안군청 제공

1976년 방축리 북서쪽 2.8㎞ 지점, 도덕도 바닷속에서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발견됐다.

길이 28.4m 너비 6.6m 크기 배에서는 절강성 용천요 청자와 강서성 경덕진요 백자를 비롯한 송·원대 유물 2만3천여점이 인양돼 '신안 보물선'으로 칭해졌다. 수심 20m 반경 2㎞의 해역은 1981년 국가지정 사적지 제 274호로 지정됐다.

증도는 우전마을 앞에 수령 500년 된 팽나무 당이 있지만, 유독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

한국전쟁 때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의 역할이 컸다. 그녀는 1935년 들어와 1940년 말까지 복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문전도부인'이란 칭호로 불렸다. 현재 증동교회 포함 11개 교회가 있고, 신도수가 900여명에 이른다.

2005년 사옥도가 연륙된 뒤, 지선개 선착장에서 증도 광암 나루터 간 철부선이 부산했다.

지난해 8월 갯벌올림픽축제와 함께 갯벌생태공원, 전시장, 엘도라도리조트, 475m의 짱뚱어다리의 등장으로 생태체험관광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1983년 면으로 승격한 증도는 2010년 연도교가 준공되면 구경꾼이 더 늘어날 것이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